

# 教育大學 發展의 課題



仁川教大 學長 南 億 祐

## I. 序 言

教育大學은 솔직히 말해서 近4半世紀 동안 별로 大學다운 발전을 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겨우 대학의 名色과 命脈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정도로 舊態依然하다.

이와는 매우 대조적으로 일반 대학은 隔世之感을 느낄 만큼 質的으로나 量的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특히 우리 教大人들의 관심을 끄는 일은 이른바 地方 5개 國立大學의 發展相이다. 群山·木浦·馬山·安東·江陵 등 5개 대학은 본래 教育大學에서 轉身한 대학으로서 ‘一市道 一校 原則’에 따라 教育大學에서 整備되어 單科大學으로 새로운 발전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그 동안 이들 대학은 한결같이 어느 教大와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였다는 사실이다. 단적인 예이지만, 全國 11개 教大의 施設費 總額이 이들 1개 대학의 시설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있었다는 實證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教育大學이 후대접받고 있었는지를 雄辯적으로 立證하고 있다고 하겠다.

國家의 公共性과 직결되는 것이 國防, 治安, 教育이 아닌가? 教育 가운데에서도 義務教育, 國民基礎教育이야말로 국가의 공공성과 불가분

의 관계를 갖는다고 볼 때 教育大學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어느 대학보다 더 커야 마땅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教育大學의 발전과 育成을 위한 정부의 투자는 미약한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釜山·光州의 3개 教育大學이 1981년 비로소 4년제 대학으로 개편되고 금년을 끝으로 淸州·濟州 教育大學이 學士課程으로 개편됨에 따라 전국 11개 教大가 모두 4년제 대학으로 개편·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教育大學 발전의 課題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셈이다. 따라서 1984년을 教育大學 發展元年의 역사의 章을 여는 뜻 깊은 출발점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教大人 모두가 教育大學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힘을 합쳐 우렁찬 전진을 다짐하여야 할 것이다.

## II. 教育大學 發展의 課題

教育大學이 앞으로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서 풀어나가야 할 課題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기로 한다.

### 1. 資質 높은 敎科教育 敎授要員의 확보

대학 발전은 敎授要員의 質的 水準에 의해 좌우된다. 즉 교수요원이야말로 대학 발전의 관건인 것이다. 教育大學은 初等敎員養成이라는 특

수 목적을 가진 대학이다. 일반 대학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대학인 것이다. 특히 '初等教育의 理論과 實際'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가 주축을 이루는 대학이 바로 教育大學이요, 이것이 敎大의 특성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教育大學의 敎科教育 敎授要員은 아직 만족할 만한 상태에 있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初等教育 專攻의 碩·博士課程이 최근에 비로소 설치되었고, 그 이전에는 全無한 실정이어서 敎科教育 교수로서의 적임자를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기에 속했던 것이다. 그리고 교수 스스로가 노력과 연구에 힘써, 겨우 자기 나름의 공부를 통해 初等敎科教育의 專門家로서의 자질을 닦아가는 일에 힘써야 했을 뿐이다.

오늘날 教育大學 敎授陣의 實在은 敎科教育에 관한 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예컨대 科學의 경우, 初等科學의 전문가가 더 필요하고 요구되는 것이나 物理, 化學, 生物, 地學으로 나누어 가르치는 데 유능한 分科學問의 敎授는 있어도 統合된 科學敎科로서(as a science) 가르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수요원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音樂에 있어서도 어린이의 音樂教育을 익히 알고 指導技術에 능한 音樂敎育家가 필요함에도 소프라노, 피아니스트, 바이얼리니스트 등 作曲, 器樂, 聲樂, 國樂을 전공한 音樂家만 많은 것이다.

美術에 있어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즉 繪畫, 彫塑, 工藝, 圖案을 전공한 美術家는 있어도 兒童美術의 전문가는 드문 것이다.

教育大學이 初等教育의 理論과 實際에 관한 한 추종을 불허하는 권위를 가져야 함이 마땅하다. 다시 말하면 初等敎科教育 專門家의 중심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행정적 조치와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교수요원의 新規採用時 敎科教育 敎授陣은 최소한 2~3년간의 初等教育에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所定의 敎授資格을 갖춘 人士를 任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敎大敎授의 연구논문은 그 교수가 敎養課程에 속하느냐, 敎職課程에 속하느냐에 따라 논문 내용이 구별

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敎養科目과 敎科教育을 겹쳐서 맡고 있는 경우에는 隔年制로 교양과 교직 분야의 논문을 제출토록 해야 한다. 즉 일반 논문과 敎科教育 논문으로 구분하자는 것이다. 그래야만 교과교육 연구가 활성화되고, 교과교육 理論定立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정부의 學術研究造成費도 교대의 경우 3:1의 비율로 교과교육에 더 비중을 두도록 함으로써 教育大學의 특성을 살려 나가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1985년에 개교하는 韓國敎員大學校나, 아니면 韓國敎育開發院에 敎科教育大學院을 설립하여 敎科教育 專攻 博士課程을 개설하고 教育大學의 現職 敎科教育 擔當敎授들에게 修學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것을 요망하며, 또한 교과교육 敎授養成을 制度化한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 2. 教育大學의 役割 擴大

오늘날 教育大學은 初等敎員의 養成과 再教育에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역할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教育大學은 장차 幼兒教育, 初等教育, 初期 中等教育까지를 포괄하는 敎員養成體制로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

幼兒敎師, 初等敎師, 中等敎師를 따로 양성하는 現行 敎員養成의 三元體制에 대해 새로운 검토와 평가가 요청된다고 생각한다. 유아교사는 專門大學이, 초등교사는 教育大學이, 중등교사는 師範大學이 도맡아 하는 식의 틀에 박힌 敎員養成體制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와 현실적 필요에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첫째는, 幼兒教育의 중요성에 비추어 專門大學 수준에서 幼兒敎師養成의 주역을 맡고 있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일일 뿐만 아니라, 가장 創意的인 능력이 요구되는 幼兒敎師를 학력 수준이 낮은 專門大學 출신으로 充員하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비교적 敎師候補生의 질적 수준이 좋은 教育大學에서 幼兒敎師 양성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이 점에 대한 반론도 있을 것으로 짐작되나, 현행 敎師養成體制에서 벗

이나 9學年까지를 하나로 묶어 低學年(K-3), 中學年(4~6), 高學年(7~9) 敎師로 나누어 양성해야 할 필요에 곧 직면할 것으로 보고, 이러한 學年制 敎師(grade teacher) 養成制度의 채택을 진의하는 바이다.

둘째로, 中學校까지 義務教育의 年限 연장이 農漁村부터 우선적으로 실시되도록 정책 결정이 되어 있는 現時點에서 우리는 합리적인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농어촌은 國民學校가 소규모인 바 이곳에 中學校를 따로 세울 수는 없으며, 어차피 국민학교에 중학교까지를 병설하는 이른바 '國·中併設校'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럴 경우 中學校 課程에 각 敎科를 따로 전담시킬 만큼 충분한 敎師 T/O를 할 수 없음은 明若觀火한 일이다. 따라서 한 敎師가 몇 개 과목을 겸해서 가르치는 방식 이외에는 별다른 묘안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國·中併設校에 적합한 敎師養成의 방안이 바로 위에서 언급한 9學年制의 初·中·高學年 擔任制인 것이다. 이런 새로운 형태의 敎師需要를 教育大學이 맡아 양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최선의 접근 방법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이에 합당한 새로운 敎師資格證制度가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初·中·高學年 敎師制는 서울敎大와 釜山敎大의 경우에는 별 필요성이 없으며, 農漁村의 國·中併設校가 설치되는 지역의 일부 教育大學에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3. 教育課程의 合理的 改善

교육대학의 교육 목적은 教育課程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교육대학의 특성은 教育課程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그 동안 4년제 대학의 교육과정은 몇 차례 改正을 보았고 그때마다 進一步한 합리적인 改善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남겨둔 채, 敎科目이나 學點의 調整에 치우친 느낌을 준다. 그리고 爲人設官式的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으며, 大學 教育課程의 일반 원칙에 어긋나는 점이 많이 눈에 띄고 있다. 특히 敎養課程에 있어서 현재의 敎

授들을 너무 의식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긴다. 이상과 현실과의 중용이 아쉬워하고나 할까?

앞으로 교육대학의 교육과정은 유능한 初等敎員養成이라는 특수 목적을 달성하고 교육대학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에서 합리적인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初等敎員 養成課程의 교육과정은 종래의 八方美人式 全敎科 담당 學級 敎師(classroom teacher)를 양성하는 all round system에서 점차 敎科擔當制로 지향하는 peak system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새로운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學校現場에서, 敎科專擔制 실시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난점이 있으므로 교육대학에서는 몇 개 교과를 선택·심화시키는 방안을 실험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방안은 앞에서 제안한 學年 敎師制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國·中併設校에서 高學年, 즉 中學校 課程을 담당할 수 있는 敎師를 배출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깊이 고려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敎大 教育課程 가운데에서 이른바 深化課程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심화과정은 副專攻이라고도 일컬어지고 있는데 21학점이나 配定하고 있다. 문제는 이 課程이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인가가 不分明하다는 사실이다. 각 敎科教育 중 어느 하나를 더 깊이 있게 다루는 advanced course인지, 아니면 初等教育이 專攻일 수밖에 없는 敎大生에게 다른 과목을 副專攻으로 택할 수 있도록 하는 課程인지 애매하다. 다만 분명할 것은 그 명칭과는 달리 일반 대학의 專攻學科, 예컨대 國文學科, 數學科, 音樂科, 美術科 등의 축소판의 성격을 띠고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교수들은 이 深化課程에 가장 매력을 느끼고 보람을 찾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교육대학의 특수 목적, 특성을 좀먹고 빛을 바리게 하는 自我矛盾 自家撞着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深化課程은 敎科教育 분야를 좀더 깊이 있게 다루는 글자 그대로의 深化課程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數學의 경우 高等數學 演習이니 位相數學이니 解析學이니 하는 식의 일반 數學科의 강좌가 아니라 數學心理, 兒童의 數概

念 발달, 誤算事例研究와 같은 教科教育의 강과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高學年(中學校 課程)教師 양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 과정을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 일반 학과의 학점을 이수토록 教育課程을 구성하면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初等敎員 양성이 교육대학이 나아가야 할 本然의 길이요, 밟아야 할 正道인 것이다.

#### 4. 教育大學의 機能 強化

교육대학이 1962년 2년제 대학으로 出帆하여 20여 년의 세월이 경과한 끝에 1981년 서울, 釜山, 光州의 3개 教育大學이 4년제 대학으로 改編을 보게 되었고 4年次에 걸쳐 금년에 淸州, 濟州教育大學을 끝으로 전국 11개 教育大學이 모두 學士課程으로 改編을 보기에 이르렀다.

교육대학은 周知하는 바와 같이 그 前身이 師範學校이었기 때문에 初等敎員의 상당수가 아직도 學歷上 高等學校 수준의 사범학교 출신이며, 그 후 20여 년간 2년제 教育大學 출신이 배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學士課程의 교육대학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는 1985년부터 初等敎員의 學歷隔差는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이를 해소해 나가는 제도적 장치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 방안의 하나로 季節制·夜間制 學士課程의 설치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通學이 가능한 지역의 敎員들에게는 夜間制를, 通學距離 밖의 지역에 居住하는 敎員을 위해서는 季節制를 개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장차 교육대학에 教育大學院 설치 문제도 아울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現職敎員의 資質向上과 現場의 指導的 人士의 연찬을 위해 現行 240시간 研修制度를 폐지하고 季節制·夜間制 學士 및 碩士課程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대학의 기능을 이렇게 강화해 준다면 敎大의 발전은 그만큼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이와 같은 조치가 전국 敎大에 확장되기 어렵다면 地域圈으로 묶어 한 교대에서는 敎師養成(pre-service training)을, 다른 한 교대에서는 現職敎師教育(in-service training)을 나누어 받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 5. 그 밖의 課題

이상에서 열거한 과제 이외에도 해결되어야 할 일이 많이 있으나, 몇 가지만을 간추려 살펴보기로 한다.

##### 1) 學級調整의 止揚

정부는 늘 初等敎員의 需給에 맞추어 교육대학의 學級을 조정하는 방안을 택해 왔다. 一見 합리적인 것 같으나 學級の 增設, 減縮은 근본적으로 교육대학 발전을 불투명하게 하는 變數로 작용하여 왔음을 알아야 한다.

교육대학은 어떤 일정한 규모의 대학으로 지속되어야 이에 합당한 발전 계획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것인데, 해마다 들쭉날쭉하는 바람에 종잡을 수 없어서 전혀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學級當 學生定員의 조정을 통하여 일정 學級數가 유지되도록 關係法規를 하루바삐 改正하여야만 교대의 安定的 成장이 비르소 가능하게 되리라고 본다. 즉 現行 40명 한 학급을 30명 내지 40명 한 학급으로 學生定員을 조정하여 敎員需給에 적절히 融通성 있게 적응해 나가도록 行政措置가 있어야 한다.

##### 2) 學生選拔制度의 改善

우수한 敎師의 배출은 우수한 敎師候補生이 敎大에 들어와야 가능한 것이다. 現행과 같은 교육대학의 특색을 살릴 수 없는 學生選拔制度로서는 所期의 목적과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學力考查成績에 의해 거의 當落이 좌우되는 現行 大學入試制度는 하등 敎大의 특색을 살릴 수 없다. 특히 藝能分野는 白紙狀態로 들어오는 실정이어서 대학이 마치 高等學校의 補充授業을 하듯 해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選拔制度의 개선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교육대학이 너무 많은 科目履修를 학생들에게 요구하게 되고 이 때문에 더욱 教育課程 運營이 어려워지고 學生 負擔을 加重시켜 대학다운을 상실하고 교대에 대한 매력은 잃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果斷性 있게 敎員養成體制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現行 學級擔任制에서 벗어나 學年擔任制로 다시 複數 敎科擔任制로 전환

시킴으로써 教育大學도 어느 정도 대학으로서의 특징인 專攻系列을 살릴 수 있고, 학생의 授業負擔을 줄여 줄 수 있는 一石二鳥의 장점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教大 志望生들에게 교대의 대학다운 교대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함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敎師候補生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 3) 教育大學 發展計劃의 樹立

전국의 교육대학은 人的·物的 規準과 組織·機構 등에 있어서 一貫된 원칙이 없이 다스려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일 규모가 큰 서울教大나 제일 규모가 작은 濟州教大나 school bus는 똑같이 한 대인가 하면, 대학의 組織機構도 규모의 大·中·小에 관계없이 大同小異할 뿐이다.

교육대학의 규모에 따른 적정한 豫算, 人員, 施設, 設備, 각종 支援策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의 규모가 크건 작건 별 상관없이 學術研究造成費가 거의 비슷하게 배정되고, 敎授의 海外視察人員 배당이 엇비슷하며, 대학의 法的 部署 機構가 동일하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 모순된 것은 대학의 규모는 아랑곳없이 施設投資가 不公平하게 이루어지는 사례이다. 사립대학도 아닌 國立大學인 教大에 대한 施設投資에 差等이 생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며, 不當한 일이라고 直言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전국의 교육대학을 千篇一律으로 동일하게 다스릴 것이 아니라, 그 규모에 따라 합리적으로 公平하게 支援 育成해 나가야 함은 물론 地域 특성에 맞게 그리고 대학마다 특색이 있도록 教育大學을 육성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치밀하고 衆知를 모은 教育大學 發展計劃을 수립하고 이 靑寫眞에 의해 몇 年次에 걸쳐 모든 教大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Ⅲ. 結 言

教育大學의 發展은 곧 우리 나라 初等教育의

발전과 직결되는 일이요, 優秀한 敎員養成을 促進하는 지름길임을 깊이 인식하고, 그 동안 동안 시하고 소홀히 했던 교육대학의 발전에 대해 정부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育成策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어차피 교육대학은 국가가 설립한 敎員養成機關이기 때문에 政府의 施策과 投資에 힘입어 外形의 發展을 도모할 수밖에 없으며, 法的·行政的 措置를 통해 體制의 변화와 개선을 이룩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교육대학의 발전은 전적으로 정부의 힘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教育大學 자체에서 스스로 發展 意欲, 改革 意志를 갖는 일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본다. 교육의 발전, 대학의 발전은 行政이 해결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며, 상당 부분은 자체의 自律의 力量과 自發의 努力에 의해 성취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教育大學의 發展問題도 자체 內部的 힘과 지혜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敎授의 資質向上, 教育課程의 改善과 合理的 運營, 學生指導의 문제 등은 전적으로 內部的 힘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教育大學이 지금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침체된 원인에는 정부의 책임도 없지 않으나 教大人 스스로가 발전을 위한 노력과 의지가 약했고 부족했다고 지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앞으로 教育大學의 週期的 發展과 跳躍을 위한 接近方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發展戰略을 치밀하게 짜서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教大人들의 단결과 협동이 요구되며, 教大 발전의 主役이 바로 自己임을 깨닫고 자기 스스로를 教大의 목적에 적합한 材木으로 다듬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나라 二世 國民教育의 主役들을 키우는 '씨앗의 씨앗'의 구실을 충실히 수행할 때 教大는 반석 위에 설 것으로 확신한다. \*